

주체의 사회주의나라

주체112(2023)

차　　례

머 리 말

오늘 조선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날이 갈수록 만방에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혹독한 국난을 과감히 이겨내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고있는 조선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이다.

5 천년민족사에서 최고번영기를 맞이하고있는 조선은 자기의 력사에서 가장 강대하고 무한대의 힘을 세계앞에 분출시키고있다.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인 조선을 견줄만한 나라는 없다.

1. 인민의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갑시다.》

국가다운 진면모를 갖추는데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문제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는것이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다. 인민은 사회의 모든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이며 력사의 창조자, 주체이다. 인민을 떠나서는 국가가 존재하고 발전할수 없다. 국가의 존립과 발전, 그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것은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있다. 하지만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인민들이 자기들의 운명과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의탁하는 국가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주고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국가라야 명실공히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라고 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가장 공고한 사회적지반을 가지고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칠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는 가장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불패의 국가가 바로 조선이다.

△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담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조선의 국가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조선에서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수중에 틀어쥐고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의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고 보람찬 생활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은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

인민대중이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사람의 정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면서 사는것이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사람은 육체적생명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정치적생명은 더 귀중하다.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오직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산다고 할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면 한생을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사회적인간의 참된 삶이 아니다.

조선인민은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하면서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당조직과 직맹조직, 농근맹조직과 청년동맹조직, 녀맹조직과 소년단조직들에서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당과 그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는 어머니라고 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정치조직생활을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정치조직생활은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순간도 중단하지 않는 습관화된 생활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없다. 모두가 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자유롭게 충분히 제기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요구와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그것이 철저히 관철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에서의 조직사상생활과정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량식으로 받아안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자신을 단련해나간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속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혁명적인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영예이고 행복이며 조선의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을 가장 높은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과 수령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당의 사랑을 어머니사랑에 비유해 말하는것도 결국 인민들에게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끝없이 빛내여주기때문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당들도 있지만 전체 인민이 당을 어머니당으로 칭송하며 당창건기념일을 어머니생일로 경축하는것은 오직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다.

조선에서 인민들은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누구나 다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하는것은 사람들의 정치생활에서 기본을 이룬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법령들은 국가주권기관들에서 토의결정되며 국가의 정치는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그 성격과 방향, 내용들이 규정된다. 인민대중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자신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은 선거이다. 조선에서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여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들이 모두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며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조선에서는 17 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지,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선거나이를 17 살로 정한것만 보아도 조선의 선거제도가 공민들로 하여금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국가주권의 실현에 일찌기 참가하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라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에서는 선거자들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특전과 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사이, 남성과 녀성, 일반 근로자들과 군인들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놓고보더라도 여기에 추천된 대의원들은 모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며 선거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고있다.

주체 108(2019)년 3 월 10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대의원선거가 전체 조선인민의 드높은

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대의원선거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고있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만방에 빛내여나가려는 열렬한 애국심의 거세찬 분출이였다.

국가관리는 주권을 잡은 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에 직접 실현되게 하는 조직집행활동이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법령과 결정지시들은 국가관리기관의 조직집행활동을 통하여 실생활에 구현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4(2015)년 2 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중앙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있으며 최우선시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로선과 정책의 옳고 그른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국가와 사회관리에서 주관주의를 피하고 우여곡절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듣는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듣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에서는 국가관리활동에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작성하며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소박한 생각과 의사를 반영하여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있다.

조선로동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농산과 축산, 수산을 3 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방침, 인민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사상,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칠데 대한 사상, 세계가 부러워할 최상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나갈데 대한 사상, 불미스러운 과거경력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줄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모든 사상과 방침, 로선과 정책들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다.

정치의 인민성은 정책에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뿐 아니라 그것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하는데 있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책을 집행해나가면서 그것이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집을 한채 짓고 거리를 하나 형성하며 신발 한컬레, 가방

한개를 생산하여도 인민들의 요구와 생활상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발전소를 하나 세워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공화국정부의 정책이다.

조선인민이 누리는 정치생활이야말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의 가장 값높은 생활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찬 생활이다.

조선인민은 참다운 경제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적인 경제제도가 마련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살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있다.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공장, 기업소, 농장 할것없이 모든 일터가 그들자신의것으로 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은 자기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고있는데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최대의 관심과 혜택이 돌려지고있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빠짐없이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재능, 전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특히 녀성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는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봉쇄나 압력,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가 전망성있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규모가 더욱 커가고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언제나 로력에 대한 수요의 응당한 장성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믿음직하게 마련해주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왔기때문에 실업자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일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로동조건과 로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되여있는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빈틈없는 로동안전보호시설과 훌륭한 문화위생조건이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안전보호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데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가지 특혜가 베풀어지고있다.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농장들마다에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들을 설치하여주고 직장과 작업장들에 녀성들의 건강보호와 위생에 필요한 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8 시간로동제에 의하여 매일 충분한 휴식을 하고있으며 그밖의 주간휴식과 년간정기휴가도 정확히 보장받고있다.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가 더 차례지고있으며 3 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은 하루 6 시간로동을 하고도 8 시간분의 생활비를 받으며 충분히 휴식하고있다.

훌륭히 보장되는 로동생활조건속에 조선인민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제 1 차적인 과업으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기에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고있다.

국가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줌으로써 나라의 재부들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 그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정권이 인민생활을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생활이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건전한 생활로 되게 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실현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평등한 물질생활을 확고히 보장해주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발전하는데 따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은 건전하고 풍만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자주의식이 강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은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던 첫 시기부터 꾸준히 벌어졌으며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였기에 오늘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높은 자주의식과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인민들속에서는 누가 보건 말건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로자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있고 온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바로 이것이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다운 모습이다. 여기에 조선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길,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강한 사상정신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을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보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무릇 민족의 과거를 알려면 력사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알려면 거리를 보며 미래를 알려면 교육정책을 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의 발전수준이자 인간의 문명수준이고 해당 나라의 국력과 발전의 높이이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5(1946)년 2 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 1 차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시였으며 교육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전체 인민이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미제와의 전쟁을 치르던 나날 최고사령부의 한지붕아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아이들이 자랐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저축하시였던 생활비도 학교건설에 깡그리 바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는 명언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였다. 지덕체라는 유명한 말도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속에 더욱 빛을 뿌리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추진되여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로 키워내고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가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원과 진료소 등 의료봉사시설을 늘이고 보건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원만히 보장하고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정성을 사회주의보건의 속성, 생명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이다.

조선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초기지이며 위생방역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담당자인 위생방역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사람들속에서 위생지식과 위생상식을 넓혀주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전염성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검진과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여러가지 전염병과 질병들의 근원을 없애고 질병들에 대한 예방치료대책들이 철저히 세워져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있으며 전염병이 발생했다 해도 전파되지 못하게 철저한 방역진이 펴지고있다.

특히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고려의학을 장려하고 고려약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으며 발병의 원인으로 되는 공해를 방지하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다.

조선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사업을 대중화, 생활화해나가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활동과 창작에 널리 참가시키며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며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군중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인민군대에서 중대예술소조, 군인가족예술소조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속에서 예술소조활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사회주의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조선로동당 체육정책의 기본을 이루며 전체 인민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사회주의건설자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에서는 학교체육을 발전시키며 모범체육군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있다.

21 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고있는 조선에서는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쎈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그 어떤 지배와 억압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나가는 생활, 항상 자기의 주인된 지위에 대하여 자각하며 행복을 제손으로 훌륭히 가꿔가는 생활, 이런 생활속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민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존엄이란 마치 늘 호흡하면서도 귀중함을 모르는 공기와 같이 범상하게 여겨지고있다.

조선에서 기본법전으로 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자주적인간의 권리와 의무,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신성하게 가장 철저하게 규제하고있는 자주적인간존중의 대법전이다. 조선에서 시행되고있는 모든 법들과 규범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는 제도적규범들이며 법규들이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은 인민의 나라인 조선의 성격을 헌법 하나를 통하여서도 여실히 느끼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이 법적으로 훌륭히 담보된 사회》라고 적극 찬양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사회적인간의 값높은 정치생활과 참다운 경제생활, 건전하고 풍만한 사상문화생활을 다같이 원만히 누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 104(2015)년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인민사랑의 연설을 잊지 않고있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라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어찌하여 인민에 대한 《복무》라는 말앞에 《멸사》라는 말을 쪼아박아주시였는지 다시한번 돌이켜보게 된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고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와야 하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한 일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은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의 마음을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이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림없이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은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온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가장 숭고한 인민존중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인민을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소박한 의사와 요구를 로선과 정책에 담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정치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인민이 있어 당이 있고 인민을 위하여 국가도 군대도 존재하며 혁명과 건설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평양시 중심부 **김일성**광장에 가보게 되면 중심에 인민들이 공부하는 인민대학습당이 자리잡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수도의 중심은 곧 나라의 중심이다. 수도의 중심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이야말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조선, 인민의 나라의 영원한 상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나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과 결부되여 불리우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정권과 군대도 《인민정권》, 《인민군대》이며 인민들이 창조해낸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궁전과 극장도 《인민문화궁전》, 《인민극장》이다. 인민을 위하여 남달리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공로를 세운 지식인들과 체육인, 예술인들의 삶도 다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존중의 정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에 뿌리를 두고있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인민존중의 정치는 인민과 더불어 영원한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참다운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인민을 위하여 언제나 만짐을 지고 험한 가시밭을 헤치면서도 행복에 겨워 웃는 천만자식들의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백배의 힘을 얻는 애민헌신의 세계가 바로 조선로동당의 정치에 비껴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만난시련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승리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창조되고있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혁명관이다.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기에 이 땅에서는 만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어느한 외국인은 《인민을 떠나 당의 로선과 정책도, 당건설과 활동도 생각할수 없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이번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끝없이 부흥번영하는 인민의 강국건설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설계도를 펼친 대회라고 생각한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투쟁구호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인민의 모습을 자기의 당기에 새기고 창건첫날부터 인민우에 군림한 당이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당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들의 뜻은 오늘 **김정은**위원장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령도자의 풍모는 전당의 풍모로 전환되게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고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도 초급당위원장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절한 음성은 모든 일군들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시작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이어지는 정치이기에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백전백승의 정치로, 만능불패의 과학으로 되는것이다.

멸사복무라는 이 말은 인민의 나라인 조선의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물이 짜다는것은 한모금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멸사복무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그 불패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멸사복무가 당과 인민정권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은 자연재해와 보건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재부를 기울이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 105(2016)년 8 월말-9 월초, 조선의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대재앙이 휩쓸었다. 자연의 광란은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시험하려는듯 력사에 보기드문 참혹한 재앙을 불러왔다.

폭풍이 불어치고 무서운 집중폭우가 쏟아져내렸다. 대홍수속에 산이 깎이여 절벽이 되고 순간에 거대한 골짜기가 통채로 메워졌다. 수많은 살림집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논밭들이 자갈밭으로 변하였고 동구길들이 강줄기로 바뀌여졌으며 철도와 도로, 다리들이 끊어지고 모래속에 묻혀버렸다. 북변의 6 개 시, 군이 폐허에 잠겼다.

적대세력들은 이것을 보고 《북조선이 심리적쇼크》에 빠지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바로 그 시각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의도로부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사업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수전으로 선포하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로동당이 발기한 200 일전투가 중간단계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고 려명거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앞에 중요한 사업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을 때였다.

하지만 인민의 생명재산,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0 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하며 려명거리건설력량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력량을 피해복구에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물론 려명거리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내밀면서도 피해복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에 대한 태도문제였다. 그것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인 멸사복무정신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처럼 중요한 려명거리건설도 일시 중지하고 피해복구전선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 재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몇천배로 더 귀중하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였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엄혹한 강추위가 들이닥치기전에 인민들에게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였다.

북부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피해지역에 새로 일떠세울 거리들과 살림집들의 형성안과 설계들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며 북부전선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흰쌀과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시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부모들과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의 마음속아픔까지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교복과 민들레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친어버이의 손길아래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야영의 길에 오르는 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났다.

그 숭고한 사랑과 뜻에 떠받들려 강력한 부대가 즉시 북부지역의 진지들을 차지하고 인민들의 보금자리건설에 진입하였으며 온 나라 각지에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이 피해지역에로 가닿았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은 전대미문의 혹심한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였다.

피해를 입은지 60 여일만에 세계는 큰 재앙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창조의 신화를 보았다.

60 여일,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에서 60 여일은 너무나 짧고도 짧은 력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나라에서는 잘해야 재난을 털어버리기 위한 준비기간 아니면 시작기간이라 할수 있을것이며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속수무책의 시기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이 짧은 력사의 한순간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는 1만 1 900여세대의 희한한 살림집들이 솟아오른 기적을 보았으며 100 여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일떠서 사회주의선경마을, 사회주의선경거리로 꾸려진 기적을 보았으며 폐허에서 철도와 다리, 제방들이 보기 좋게 일떠선 기적을 보았다.

그 무슨 《심리적쇼크》에 대해서 떠들던 원쑤들이 주저앉아 입을 다물고 질겁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북부피해복구의 기적적인 승전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며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변적인 기적》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악성전염병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험성과 후과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국가방역사업을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으로, 국가사업의 제 1 순위로 내세우시고 국가의 총력을 발동하도록 하시였으며 방역사업에 대한 군사화된 지휘체계와 함께 세계가 알지 못하는 선제적인 봉쇄조치, 강도높은 방역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강도높이 전개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 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다고,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이라고,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세계가 전염병재난에 시달리며 불안과 고통속에 보낸 지난 2년 3개월동안 조선인민은 악성비루스가 없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조선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는 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한 후의 방역대전은 하늘이 무너진대도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 최상의 높이에서 발현된 격동의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11(2022)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도록 하시고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폐조치를 실시하며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돌발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대전을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전으로 전환하고 도래한 비상시국에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조선을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비상방역정형을 매일 료해하시고 지난 80 여일동안에만도 580 여건의 강령적인 말씀과 비준과업을 주시면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나라의 보건위기를 타개해나가는데서 견인기적역할을 해야 할 자기의 기본책무에 충실하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시내의 약국들에도 몸소 나가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며 사무실에 앉아 제할바를 하지 않고있던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숭고한 책임과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였으며 몸소 가정에서 마련하신 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황해남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하신 친어버이사랑은 악성전염병과의 전쟁을 그 어떤 물질기술적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월한 조선의 정치제도와 당과 인민의 일치단결된 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덕과 정으로 타개해나가는 방역전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간고했던 91 일간의 나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 건에 2 만 2 956 페지나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방역대전의 날과 달들에 바쳐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방역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수년동안 억제하지 못하고있는 방역위기를 80 여일만에 완전평정하는 세계보건사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주체 111(2022)년 8 월 10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개괄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시였으며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엄청난 보건위기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앞당김에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며 분투, 활약한 전국의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과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상위기상황하에서도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주요공업부문에서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전반적인 국가사업의 원활성을 보장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고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며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자고 호소하시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시였다.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이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2 년 3 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방역대전의 경이적인 성과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향도력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조선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사상초유의 방역위기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위기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조선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한 사변들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만 이룩될수 있는것이였다.

△ 이민위천의 리념 구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인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우월성을 규정짓는 기본척도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이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없다. 하기에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라고 하는것이다.

이민위천은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고 전진시켜오시였으며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5(1936)년 초겨울 천도교 령북지방 도정이였던 박인진을 만나시였을 때 그는 수령님께 숭상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고 심중의 말씀을 올리였다.

한울님이라면 천도교에서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지기》의 실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최고의 숭배대상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고 하시였다.

하늘처럼 여기고 하늘처럼 섬기는 인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중시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상하시는 대상은 인민이였다. 그것도 보통의 마음으로 존경하는것이 아니라 하늘로 떠받드는것이 바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하늘로 섬긴다고 하신 교시는 결코 종교신자인 도정의 물음에 대응하는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교시가 아니였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고 하늘로 떠받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활과 투쟁속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듣고난 박인진도정은 자기가 이번에 백두산에 온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야 진짜 한울님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인민은 하늘,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이 독특한 관점은 인민이라는 거대한 실체의 위력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의 응결체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주장해오신 좌우명이다.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숭고한 좌우명이 이민위천이라는 네글자에 집대성되여있다.

하늘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끝도 알수 없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펼쳐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의 이러한 무한성, 절대성을 인민의 최고의 존엄과 가치, 무궁한 지혜와 위력을 상징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력사에 새겨주시였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귀중한 존재,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굳게 믿으시고 그 인민을 최대의 경의를 다해 받드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숭고한 관점이였다.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혁명방식을 총칭하는 불멸의 격언이며 수령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고귀한 정치적신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작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새조국건설로 들끓던 해방직후와 전화의 나날,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4 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실수 있은 근본비결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발동하신데 있다.

주체 83(1994)년 4 월 미국 CNN TV 방송회사 기자단을 접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시며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으며 문학도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에게서 배우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과 같은 불멸의 사상을 창시하실수 있었고 수령으로서의 가장 탁월한 지도능력을 지니실수 있었으며 철학과 경제학, 문학과 심리학의 대가로도 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일관된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당과 국가, 군대를 건설하시여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 인민의 국가, 인민의 군대로 건설하실수 있었던것이다.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후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눈에 어려오고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페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교시가 귀전에 울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기에 이 땅우에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이 솟아올랐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3(1994)년 7 월 6 일에 하신 교시에서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자신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였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였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이 교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귀한 유훈으로 조선민족사와 세계혁명운동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있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처럼 힘있고 우월하며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고 하시였다.

주체 78(1989)년 정초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던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회에 고심어린 노력끝에 자기가 생각하여 묶어본 위대한 장군님의 《10 대인민관》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정히 쓴 문건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③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④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⑧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⑩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문건을 받아 다 읽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무가 흥미있고 통속적으로 묶어놓은 **김정일**동지의 10 대인민관은 어느 조항이나 **김정일**동지의 말에 기초한것이므로 보충할것도 덜것도 없다고, **김정일**동지의 인민관이자 나의 인민관이다, 말하자면 **김일성**의 인민관이자 **김정일**의 인민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며 사랑하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는 숭고한 인민관에서 흘러나온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져있다. 이것을 놓고보아도 인민을 얼마나 신성히, 높이 떠받드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다가 조선로동당기를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펄럭이는 당기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당기는 바라볼수록 마음이 숭엄해진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혁명활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다가 나는 원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그래서 당을 창건하면서 그 기폭에 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넣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겨보시며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저 붉은 기폭에는 인민대중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모습이 새겨져있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 그러기에 나는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이 하늘이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취미속에 그 인간을 본다.》는 말이 있다.

주체 90(2001)년 7월 24일 로씨야 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계시는가 하는 기자들의 호기심어린 물음에 자신께서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이라고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으로, 락으로 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보아도 인민들과 군인들을 찾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깊이 새겨져있다. 공장과 농촌에는 물론 산세험한 최전연의 초소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시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만나주신 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어느한 문필가는 《그이의 이 발자취를 모두 이어놓으면 나라의 지도가 되고 력사가 된다.》고 아주 적절히 표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전기로앞에서 끓는 쇠물을 들여다보시며 용해공들의 생산성과를 고무해주시고 애어린 선반공들이 올리는 인사의 말씀도 고맙게 들어주시였다. 농촌에 가시여서는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정형을 알아보시였고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쌀독도 열어보시고 땔감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이제 태여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녀인의 무랍없는 청도 들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신날, 명절날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민들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얼마동안만이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하게 말씀올렸으나 나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지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일군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보라는 눈물겨운 말씀을 하시고는 불편하신 몸으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력사는 달리는 야전렬차를 집무실로 삼으시고 오직 인민을 위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령도자를

기록하지 못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최대의 락, 기쁨을 맛보시며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리여 조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숭고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체계와 내용은 인민대중을 하늘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여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조류들과 주의주장들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기본리념, 기본정신으로 하는 사상은 없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이것은 인민을 하늘로 숭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관점과 립장인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신년사에서 자신께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철저히 일관되고있다.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진정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의 령도자들의 신앙이다.

이 위대한 신앙이 있어 조선인민은 정신력과 창조력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위원장의 페회사의 한 대목이 세계언론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합니다.>

정녕 인민사랑을 그 어떤 정치적의지나 령도자의 의무로가 아니라 량심으로, 전통으로 지닌분만이 하실수 있는 맹약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조선의 령도자들은 인민이라는 하늘에 빛나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생애를 깡그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만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출발점으로,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조선인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적들의 총구가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각로대에도 오르시고 자그마한 목선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여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인민들을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은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이르는 전전선에 어리여있고 동해의 어촌마을에도 깃들어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눈보라치는 날이나 뙤약볕 내리쬐는 날이나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

삼복철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화락 적시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걸으시는분, 먼지가 일고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도 서슴없이 걸으시며 란간이 없는 계단도 서슴없이 오르시는분, 물고기대풍에 그리고 만족해하시며 비린내가 나는 물고기도 서슴없이 쥐여보시며 희열을 느끼시는분,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한가지 마련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분,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오르시였던 27hp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목선과 시험운행삭도, 시험비행기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해주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천품으로 타고나신분,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만복을 꽃피워가시는 인민의 태양이시다.

△ 가장 인민적인 시책 실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력사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존재하였지만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는 가장 리상적인 인민의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와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주체 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주체 47(1958)년에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주체 56(1967)년에 전반적 9 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고 주체 64(1975)년부터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제를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주체 101(2012)년 9 월 25 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 12 기 제 6 차회의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였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는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중등일반교육체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은 1 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 년제소학교,

3 년제초급중학교와 3 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 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세대들에 대한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이다. 그리고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교육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세상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라고 하였다.

과학기술지식의 년평균장성률이 10%계선을 훨씬 넘어선 현시기 교육기간을 1 년만 늘여도 나라의 경제장성률이 비할바없이 늘어난다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더 강대해질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하며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주체 48(1959)년부터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 청소년학생들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단계에서뿐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단계에서도 완전한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세상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령기의 모든 학생들뿐 아니라 학령전아이들도 다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내주며 공부시키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 기초하여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료교육의 대상으로 하며 또한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 모든 형태의 온갖 교육비용이 국가의 부담으로 보장되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담으로 마음껏 배우며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웰남의 호지명주석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적자가 나기때문에 할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쟁을 겪고있던 주체 42(1953)년 1 월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련의 시기인 주체 41(1952)년 1 월 어느날 보건성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자고 하시였다. 무상치료제에 얼마나 방대한 비용이 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보건성의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좀 곤난하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주체 49(1960)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7 차회의에서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그때부터 외진 두메산골과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무상치료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뿐 아니라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호담당의사들이 담당세대들에 대한 예방치료와 위생선전, 접종사업 등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은 모든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은 또한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로동의 질과 량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에서는 정성을 사회주의보건의 속성, 생명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원과 진료소 등 의료봉사시설을 늘이고 보건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보장하면서 의학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 등이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2016 년 9 월에 있은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 69 차회의에서는 보건부문 지속개발목표리행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였는데 조선이 지역적으로 제일 앞선 나라로 평가되였다.

세계적으로 지속개발목표달성에서 난문제로 나서고있는것이 바로 전민건강봉사체계의 확립과 말단단위에서의 보건일군수가 적은것이라고 한다. 그로 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의 보건부문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고도 평등한 건강봉사를 할수 있는 사회는 실현할수 없는 리상사회라고 생각하고있다.

2016 년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에서는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성원의 뚜렷한 표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에 보건부문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세상사람들이 인류사회발전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감탄하는 조선에서의 세금제도페지를 놓고도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현물세를 면제하거나 그 비률을 낮추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주체 55(1966)년 4 월 최고인민회의 제 3 기 제 5 차회의에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실현하였다.

주체 63(1974)년 2 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주체 63(1974)년 3 월 21 일에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4 월 1 일부터 철저히 실행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없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조선뿐이다.

돌이켜보면 조세제도, 세금제도는 국가발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수천년동안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세금은 오늘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의 완전한 철폐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수십년전에 벌써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여 인민들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아오고있다.

세금없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행복의 요람임을 뚜렷이 말해주는 위력한 현실적증거이다.

조선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도록 하는 인민적시책을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영예군인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영예군인들은 피로써 조국을 지킨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을 꽃방석에 앉히고 존대하여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이고 공로자이며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도 영예군인들의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관심하고 보장해주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조선에서처럼 부상당한 군인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나라는 없다.

조선에서는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원, 양로원들을 전국도처에 훌륭히 일떠세우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보장하고있다.

주체 101(2012)년에 창전거리를, 주체 102(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를, 주체 103(2014 년)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주체 104(2015 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주체 106(2017)년에는 려명거리를 건설하였다.

주체 108(2019)년 12 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시가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도약대가 마련되였다.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조선식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억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주체 111(2022)년 4 월 11 일 평양에서는 송화거리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건축발전구상과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계획에 따라 수도의 동쪽관문에 일떠선 송화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받들어올린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태동하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이다.

수도 평양을 주체사상과 주체문화, 조선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불과 1 년사이에 80 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 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부흥의 설계도따라 조선식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주체 111(2022)년 4 월 13 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조선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발전전략이 응축된 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평양시살림집전망목표에 따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번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되고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제 1 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영광과 긍지를 기적창조의 열정과 혁명적기백으로 승화시켜 불과 1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구획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주체 112(2023)년 4 월 16 일 화성지구 1 단계 1 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의 휘황한 래일을 비껴안고 해마다 특색있는 대건축군들로 웅장화려한 선경거리들이 솟아나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안아온

세기적인 전변이며 만난을 박차고 상승발전의 시간표대로 전진비약해나가는 조선의 강용한 기개와 무진한 저력의 힘있는 실증으로 된다.

국가적투자를 하여 일떠선 웅장화려한 거리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평범한 로동자, 지식인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민적시책의 실시, 이것은 결코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것이 지출될수록 더 큰 기쁨을 느끼며 인민의 밝은 모습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는것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며 공화국정부의 시책이다.

인민적시책이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으며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더 공고발전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의 명망높다는 빌리 그라함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후 기자들로부터 《목사님은 왜 조선에 성경책을 전하지 못했는가?》라는 특이한 질문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성서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책임, 이것이 인간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시고 실천하시는 국책이다.

조선인민은 그분을 하느님처럼 받들고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라는것이다.

미국의 목사가 한 진실의 고백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여 온

미국땅을 의문부호로 만들어놓았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런 의문이 생긴것은 당연하다. 세계의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에서 당국의 그릇된 시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으며 극심해지는 정치적분쟁이 동족간의 무장충돌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정든 고향을 떠나고있다. 먹고 입고 쓰고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우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예수가 할 일이 많겠지만 조선에서는 할 일이 없으며 또 성경책이 필요없는것이다.

가장 인민적인 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준엄한 시기에도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고있다.

인민적시책이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으며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더 공고발전되고있다.

조선은 만민이 공감하고 찬탄하는 인민의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인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는 가장 존엄높은 인민의 국가이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정권이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기에 조선인민은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히 여기고있으며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세계가 보란듯이 최고의 높이에서 빛내여나갈 강렬한 지향과 의지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이런 나라야말로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이다.

2. 일심단결의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단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은 만민을 공감시킬수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치가 없기때문이다.

조선은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제기하고 빛나게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한것으로 하여 조선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동공세가 가증되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최강의 국방력도 갖출수 있었다.

△ 사상적일색화 실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 대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조선에서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게 된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이라는데 있다.

조선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다.

주체 44(1955)년 12 월 28 일, 이 날은 조선의 현대력사에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날로 기록되여있다.

바로 이 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로작을 발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남의 힘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자연히 사대주의에 물젖게 된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굴종사상으로서 사대주의에 빠지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의것, 큰 나라만 쳐다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것이다.

사대주의는 조선인민이 망국의 비운을 겪게 한 뿌리깊은 사상독소였다.

력사적으로 조선에는 사대와 교조가 깊숙이 뿌리박혀있었다.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뒤떨어진 나라의 형편은 발전된 큰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환상과 의존사상을 낳았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걷고있을 때 밖으로는 큰 나라에 대한 숭배와 아부굴종, 안으로는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쳤을 때에는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끔 외세를 끌어들여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다나니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였다. 왕궁을 지키는것조차 남의 군대에 맡겼으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더 론할 여지조차 없었다.

사대에 물젖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5 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조선민족이 하루아침에 일제에게 모든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대주의의 후과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그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오시였다.

렬강들과 그와 결탁한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사회의 모든 령역에 침식된 각양각색의 사대의식을 들어내는 투쟁은 사실상 옹근 하나의 대전과 맞먹는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이였다.

오랜 기간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사대주의는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새 민주조선건설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시기에도 자주와 창조의 항로를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조선에서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미제와의 가렬처절하였던 3 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뚜렷이 드러났으며 특히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 시기에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조선의 구체적현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모든것을 남의 식대로 남에게 의존하여 하려고 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사상사업분야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났다.

사대와 교조에 물젖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에 힘을 넣은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라외웠으며 당의 혁명전통과 조선인민의 투쟁력사는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내리먹이였다.

어느한 군대휴양소에 다른 나라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있으나 조선의 금강산이나 묘향산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은 없었고 어느한 민주선전실에는 다른 나라의 5 개년계획에 대한 도표는 있었으나 조선의 3 개년계획에 대한 도표는 한장도 없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 시기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당건설과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여나섰던것이다. 이자들은 당안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식시키는가 하면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지어 큰 나라의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사대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국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우심한 간섭책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해야 했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이라고,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중국혁명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욱더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구체적현상들과 그 해독적후과, 그것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사상분야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사상사업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당건설과 정권건설, 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대외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시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현대수정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조선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한짝이 되여 당사업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여나선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쳐물리친것도 이 시기였고 조선로동당이 반제반미투쟁을 포기하고 미제와 타협할것을 강요하여나선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결연히 배격한것도 이때였으며 《통합경제》로선을 들고 조선을 저들이 만들어놓은 쎄브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는 자들의 압력을 일격에 물리친것도 바로 이무렵이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조선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가장

위험한 사상독소인 사대주의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극복되고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상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세기 90 년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것은 이 나라들에서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가 심하였기때문이였다. 지난 시기 동유럽사회주의나라 사람들은 쏘련이 《아》 하면 같이 《아》하고 쏘련이 《베》하면 같이 《베》하였다. 이전 민주도이췰란드사람들은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모스크바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베를린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쓰고다닌다는 일화까지 생겨났다.

아마도 그때 조선에서 사대를 배격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오늘의 조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선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은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있었으며 식민지약소국으로 되여있었다.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지난 한세기전 다리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있는 한장의 그림으로 당시 렬강들의 각축전의 마당으로 되였던 조선을 상징화하였다.

민족도 그 민족이고 지정학적위치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력사적으로 사대와 교조가 깊숙이 뿌리박혀있고 대국주의, 수정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이 우심하였던 조선에서 사상적일색화를 제기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자주의 신념과 배짱이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경제기술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도 참고하고 일정한 방조도 받았지만 정치사상분야에서만은 모방과 수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그때 조선에서 사대를 배격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오늘의 조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선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조선의 발전행로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중단없이 벌려 그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되여온 과정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것은 다름아닌 사상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직접적담당자는 그 나라 인민들이며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것은 사상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겨주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며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떠밀어나가는 힘도 그 나라 인민들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겨주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현시기 주체사상은 그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사상으로 되고있다.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밝히고 세계를 비치는 옳바른 사상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상이 우월하면 그만큼 견인력도 크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남아있고 외부로부터 반동적인 사상의 침습과 영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인민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할수록, 원쑤들의 책동이 심해질수록 더욱 중시하고 강화해야 하는것이 사상사업이다.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확고히 앞세워온 사상교양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교양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조선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온 사회를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그와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발붙일 틈이 없고 배겨낼 자리가 없다. 그것은 주체사상만이 조선인민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높이 들고나가는 유일한 세계관이며 모든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이고 무기이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이 세계를 휩쓴 정치풍파와 사상동란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고 오늘도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리념으로 높이 들고 그에 기초한 사회전반의 사상적일색화를 빛나게 실현한데 있다.

지금 세계의 제노라 하는 나라들도 분파행위와 민족문제를 비롯한 복잡하고 골치아픈 내부문제로 하여 진통을 겪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색갈혁명》과 분렬리간책동의 결과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고 살던 여러 민족, 종족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대립되여 류혈적인 내전까지 벌리고있다. 이로 하여 나라는 분렬되고 인민들은 내전을 피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 류랑걸식하는 비극적인 사태들이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다.

하나의 주권이 행사되는 국가인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치리념을 가진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있으며 여러 정당들사이의 집권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각이한 사상조류와 여러 정당들의 치렬한 당쟁으로 하여 사회전체의 사상적통일에 대하여서는 상상도 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현세계의 실태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확고히 실현한것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이 가장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자주적신념과 배짱이 강한 인민을 키우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해나간다면 인민이 위대하고 나라가 강대해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 이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은 국가발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렬강들의 비위를 맞추고 폭제와 전횡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세계에서 자기가 할 말을 다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은 온 사회의 사상적통일을 실현하고 전국, 전민, 전군을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일심단결을 이룩한 나라이라는데 그 비결이 있다.

조선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을 이룩한 나라이다.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짓밟히고 뭉치면 산악처럼 솟아난다는 말이 있다. 혁명투쟁에서는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로부터 단결은 혁명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고 하는것이다.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조선혁명의 길은 신념이 없이는 끝까지 갈수 없는 간고하고 준엄한 길이다. 제국주의의 극악한 압살책동속에서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립증하며 인류의 희망인 공산주의사회를 일떠세우자면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조선인민이 지닌 혁명적신념에서 기본핵은 자기 수령에 대한 신념,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이다. 수령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한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며 끝까지 따르려는 비상한 자각과 각오,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드팀없이 받들어나가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는것은 혁명가의 기본사명이며 본성적요구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확신, 수령의 령도따라 나갈 때 반드시 백전백승한다는 투철한 믿음에서 절대적인 충실성도 나오고 높은 혁명성과 용감성,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도 발현되는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인민은 언제나 강하고 백승하는 법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사고와 활동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신념, 혁명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은 마음의 기둥이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어떻게 화가 복으로,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떤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는가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있다.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있기에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이 조선인민의 확고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조선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은 총비서동지의 인민적풍모에 대한 끝없는 매혹에 뿌리를 두고있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나날들은 수령은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을 바치고 인민은 수령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흐른 날과 달들로 이어져있다.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당과 혁명에 충성다하며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것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상징이며 일심단결에 조선식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일심단결은 광범한 대중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도덕의리적결합체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단합인것으로 하여 일심단결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다.

일심단결은 사람들의 단순한 기계적결합이나 산수적인 합계가 아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지향도 하나로 되고 운명도 미래도 하나로 합쳐진것이 다름아닌 일심단결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단합인것으로 하여 일심단결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나라이다.

일심단결은 공동의 정치적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한결같이 일떠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간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며 굳게 뭉치는 인민대중의 힘과 열정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 조선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적인 승리들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실하고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충의심과 헌신적노력이 응축되여있다.

조선인민의 가슴가슴은 세인이 우러르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있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투쟁이다. 누구도 조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이 믿을것은 오직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창조력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10 년을 1 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적인 속도로 내달리는 조선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

10 년은 기나긴 력사에서 순간과도 같다. 하지만 이 길지 않은 기간에 조선인민은 놀라운 기적들을 무수히 창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그것을 새시대의 탄생으로 이름짓는다.

조선이 올라선 절대적지위와 강대한 힘에 있어서나,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천지개벽에 있어서나, 국가의 비상한 전진속도와 기백에 있어서나, 인민의 높아지는 리상과 창조력, 달라지는 문명의 경지에 있어서나 조선인민은 새시대에 살고있다. 10 년을 력사의 분화구로 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장엄하게 솟구쳐올랐다.

장구한 인류사를 보면 새로운 한 시대의 탄생에는 오랜 세월 지어 몇세기라는 잉태기, 과도기가 필요하였다. 하나의 년대에 해당되는 10 년에 가장 위대하고 력동적인 새시대가 탄생하였다는것은 동서고금에 전무후무한 사변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그 10 년에 일어난 사변들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

인민의 리상향인 삼지연시, 10 여개 동, 리들이 마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전혀 새롭게 일떠선 삼지연시, 누구에게나 조선로동당이 펼쳐가는 천지개벽의 참뜻을 다시 알게 하는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된 삼지연시는 전체 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새로운 변혁의 시발을 열어놓았다.

백학이 날아와 앉은것같은 라선시 선봉구역 만복동과 푸른 바다와 온실남새바다가 잇닿아있는 중평지구에 동해천리의 리정표들을 세우고 새 모습을 드러내는 검덕지구의 산악협곡도시를 지나 함경남북도의 연연히 늘어선 선경마을들, 철령아래 사과바다로 유명한 고산과수종합농장과 세포등판, 마식령스키장, 황금해의 이채어경을 펼친 포구들을 비롯한 강원땅의 많고많은 10 년의 새 지명들을 벅찬 가슴을 안고 조선인민은 표기해본다. 새 문명의 별천지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거쳐 전화위복의 전설들이 꽃펴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와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다시 채색하며 서해지구의 화살표를 그어보니 황해남도 금산포의 새 선경, 천도개벽의 《복섬》들이 점점이 반짝인다.

수도 평양은 10 년세월의 중심축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따라 새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는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평양육아원, 애육원, 평양양로원, 인민야외빙상장과 류경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와 과학기술전당 그리고 황홀한 새 거리들 …

그 하많은 새 이름과 새 모습들을 하나의 화폭으로 집약하면 문명발전의 대로천전람관을 이룬다.

창전거리의 45 층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53 층살림집, 려명거리의 70 층살림집과 송화거리의 80 층살림집에 이어 지금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그 보다 더 높은 초고층살림집을 일떠세우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떠받들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지역적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된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일떠서 이 땅우에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시대어에는 시련속에 백배로 강해진 자립경제건설의 전진행로가 굽이쳐오고 다수확열풍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나라 농민들의 백옥같은 마음에 가슴후더워오른다.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 려명신화 등 이 모든 전설같은 속도들에 10 년이라는 세월을 곱하면 새시대가 솟구친 힘과 도약의 높이가 된다.

주체 111(2022)년에 조선인민이 결사적인 투쟁으로 이룩한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영웅신화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창조한 로동당시대의 건설신화들, 나라에 조성되였던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를 최단기간내에 평정한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천만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며 총비서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만사가 다 잘된다는것이 조선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지금 온 나라 곳곳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 녀성들은 당을 순결한 량심과 증산성과로 받들며 친혈육의 정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하고있다.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건설장들마다에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보검을 틀어쥐고 당에서 중시하는 최전선, 최전방들에서 결사관철의 모범들을 창조하여 온 나라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 어디서나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천만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총비서동지께 기쁨드릴 일념으로 가슴끓이는 조선인민의 정신력과 창조력은 더 큰 기적과 변혁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속도를 배가해나가고있다.

조선은 국가의 최고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폭제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과감하게 맞서 적들의 기를 꺾어놓고있으며 사상강국, 자주강국의 위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1990 년대에 적들이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특별사찰》문제까지 들고나와 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발광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때에 조선에서는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고 뒤이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준전시기간 최고사령관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켰으며 인민들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섰다. 청년들은 한결같이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는 500 만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떨쳐나섰다. 준전시기간에 인민군대에 입대하거나 복대하겠다고 탄원하여나선 청년들만 하여도 150 여만명이나 되였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의 일심단결의 힘은 적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안아왔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사정없이 겹쳐든 대재난을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태풍과 큰물로 인한 자연피해복구전에서 높이 울려나온 승리의 개가는 조선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 109(2020)년에 조선은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태풍과 큰물피해를 다발적으로 받게 되였으며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온 나라를 산악같이 일떠세우시고 검덕지구를 비롯한 피해복구전역들에 최정예수도당원사단과 수십만대군을 급파하시였으며 나라의 전략예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시여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전설적인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인민의 고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그를 가시기 위한 국가적조치들을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을 받들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피해복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연의 광란으로 불행을 당한 수많은 수재민들이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원속에서 행복의 주인공들로 되고 불과 한두달사이에 훌륭히 솟아난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펴는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새집들이를 하는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보내주고 식량과 겨울나이용땔감을 마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천지개벽된 곳곳에서 인민들이 심장으로 터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대재앙의 페허우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게 된것은 온 나라의 일대 경사였으며 이것은 일심단결의 나라인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였다.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어느때나 승리라는 절대값만을 산출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움직일수 없는 론리이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최대의 속도로 전진하고 비약하며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조선의 현실은 바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세계는 일심단결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한 외국인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웨치는 군중시위참가자들을 보면서 령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된 조선인민의 모습에 대해 깊이 느낄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심이 력력히 어려있었다.》라고 하였다.

다른 한 외국인은 《**김정은**동지를 아버지라 목청껏 부르며 어린이들이 달려나오고 그이께서 몸소 일어서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혈연적뉴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감동적인 현실이였다. 령도자와 인민대중이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단결된 나라,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조선인민들이 정말 부럽다.》고 하였다.

또 다른 외국인은 《세계에는 부유하다고 하는 나라도 많지만 강권과 전횡앞에서는 더 굽신거리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조선만은 다르다. 그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고 그이를 지지하는 인민의 힘이 보통 강하지 않기때문이다. 부인할수 없는것은 이런 국가단결력이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된 일이 없는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실현은 고사하고 흉내낼수

있는 나라조차 현재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재미동포인터네트 《민족통신》의 한 론설위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유태인들은 어느 국가의 경제력이 강하거나 국민들이 잘 산다고 그 국가를 우월하다고 보지 않는다. ••• 그들은 북조선을 왜 강한 국가로 인식하는가. •••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싸일을 보유한 국가이기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북조선만큼 자주성이 강하고 배짱있는 일심단결된 힘을 갖고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북조선에서는 위대한 령도자가 있고 주체철학이 있고 령도자와 인민들이 일심단결된 힘, 핵무기보다 무서운 힘이 있다는것을 잘 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라고 하면 핵무기를 념두에 두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핵무기의 물리적힘을 릉가하는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일심단결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최대의 무기이다. 일심단결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만 있고 또 있을수 있는 특허무기이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정치가치고 단결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사회가 적대되는 계급들로 분렬되여있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전사회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공고한 단결을 이룩한 전례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할수 없었고 또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고 일심단결을 이룩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이다.

사상의 유일성, 의지와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 덕과 정이 넘치는 화목한 대가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화목한 대가정,

비록 여섯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거대하고도 심원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가 있다. 천만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승리를 확신하며 억척같이 나아가는 비결이 있다.

사람들이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세련시키고 완성시키는것이 조선혁명의 목표이며 온 사회에 덕과 정이 차넘치게 하고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락원, 조선식사회주의를 일떠세우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다.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 나라마다 사회정치제도며 자연지리적조건, 민족적풍습과 생활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적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사회라는 대집단속에 사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중요하게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기풍이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아무리 풍족하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속에 산다면 그런 생활은 행복한 생활이라고 할수 없다.

세상에는 경제발전과 현대문명을 운운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간생활의 참다운 륜리도덕을 떠난 그 어떤 발전이나 문명도 한갖 허울에 불과하다.

방대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도 대신하거나 보충할수 없는것이 바로 도덕기풍이다. 도덕적으로 저렬한 군대가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도덕이 결핍된 사회는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패륜패덕과 각종 범죄, 말세기적풍조들은 도덕적결핍, 도덕적부패가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력사에 류례가 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쌓이는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조선이다.

누구나 부드러운 인정미와 고결한 도덕의리심, 고도의 자각성과 불같은 헌신성을 지니고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조선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고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결합되여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참다운 사회이다.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 꽃나이청춘들이 특류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돌보아주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소행들이 어디서나

꽃펴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 조선의 현실이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이 있어 대지우에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절세위인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그처럼 그윽한 인간적향기가 공기마냥 넘쳐흐르는 조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위대한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불같은 열과 정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끝없이 부어주고계신다.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이고 리상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념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고상한 풍모를 높이 발휘한 참인간들의 모습이 오늘도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그 모습들중에는 위급한 순간에 자기자신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며 귀중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금골광산의 광부였던 박태선동무가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금골광산의 광부였던 박태선동무를 시대의 전형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친필서한도 보내주시고 그가 일하던 소대를 《박태선영웅소대》로 부르도록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조선인민들 누구나 정담아 부르는 《처녀어머니》의 부름을 새겨볼수록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뜨겁게 돌이켜진다.

주체 104(2015)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촬영장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미풍선구자들의 크나큰 환희로 하여 촬영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모범적인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속에는 《처녀어머니》로 불리우는 장정화동무도 있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그의 소행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처녀어머니》라는 말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을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처녀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부름은 고상한 정신과 미덕을 지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조선의 참모습을 긍지높이 말하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것을 그 어떤 사회적의무감이나 요구로가 아니라 마땅한 의리로 여기고있으며 이러한 정신도덕적풍모는 날을 따라 더욱 훌륭히 가꾸어져 사회주의미풍의 대화원을 펼치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여 수십년세월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회안청년탄광의 김춘화녀성과 정든 집과 수도를 떠나 최전연초소에서 10 여년세월 병사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원군미풍을 발휘한 김희련녀성의 감동깊은 소행이야말로 자기의 조국과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받드는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진면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김춘화, 김희련녀성에게서만이 아니라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휘되고있는 미풍들은 오로지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여가는 백옥같은 애국심이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무한한 헌신이며 사심을 모르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인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12(2023)년 2 월 14 일 조선인민군창건 75 돐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되여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낸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승승장구의 보무마다에는 당의 강군건설로선과 군사중시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삶의 제일가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부국강병의 대업실현에 밑거름이 되여준 진정한 애국자들의 값높은 공헌과 수고가 진하게 슴배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력한 국방이 없이 강국건설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원군이 제일가는 애국임을 잘 알고있기에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식들을 모두 방선초소에 세우고 조국수호의 전호를 군인들과 함께 지킨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원군길을 묵묵히 걷고있다고 하시면서 원군미풍열성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원군미풍열성자들의 정신이야말로

가렬처절한 포화속의 전선원호길을 헤치던 1950 년대 남강마을녀성들의 백절불굴하는 강인성의 산 숨결이며 전후의 페허우에서도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울바자를 금성철벽으로 억척같이 쌓아올린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위대한 애국정신의 줄기찬 계승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이런 정신은 마땅히 전렬에 내세워야 하며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실로 조선은 만사람을 감동케 하는 미덕과 미풍의 향기가 어디가나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이며 그처럼 고결한 마음들을 시대와 인민앞에 내세워 값높은 영광을 안겨주는 위대한 삶의 품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품이다.

이 땅에 펼쳐진 덕과 정의 세계는 결코 평범한 날에는 그 진가를 다 알수 없는 깊고도 강렬한것이다.

어려울수록, 시련과 곤난이 클수록 고락을 함께 하며 주고받는 정과 사랑이 행복한 날, 례사로운 날보다 백배천배로 귀중한것임을 류례없이 엄혹했던 날과 달들은 가슴벅차게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그 험한 진창길을 제일먼저 헤쳐가시고 태풍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언제 산사태가 무너져내릴지 모르고 물먹은 철길로반들이 어느 시각에 주저앉을지 모르는 그처럼 위험천만한 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겨가신 그 불멸할 자욱마다에 꽃펴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중에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전례없는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고도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오히려 인사를 하시고 신세를 지고 간다고 뜨겁게 뇌이시던 이야기도 있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편히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진 이야기도 있다.

자연의 대재앙이 련이어 덮쳐들던 그 나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사수의 대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온 나라가 어깨를 겯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회주의의 대풍모를 더욱 높이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공개서한에 접하고 불과 몇시간만에 수많은 수도당원들이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에 달려나갈것을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피해지역들에서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내며 인민군장병들이 새겨간 위훈의 자욱마다에는 감동깊은 애민헌신의 이야기들이 수놓아졌다.

뜻밖의 정황속에서 차디찬 강물속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세찬 물살에 떠밀려가는 검덕의 녀인들을 구원한 이름모를 병사, 큰물피해로 집과 가산을 다 잃은 전쟁로병의 생활을 친자식된 심정으로 돌보아준 어느한 부대의 부부운전사,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으로 철야전을 벌려가는 속에서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까지 바쳐가며 사경에 처한 환자들을 소생시키고 앞 못보는 환자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준 화선군의들…

정녕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을 안고 돌우에도 꽃을 피울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인민군군인들의 그 고결한 정신세계는 몇권의 책으로도 다 전할수 없다.

하기에 피해지역 인민모두가 인민군대가 제일이라고, 이런 인민의 군대를 키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다고 마음속진정을 목메여 터친것이다.

이 땅에 몰아치는 비바람, 눈보라가 사나울수록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지키려 보다 억세여지고 더욱 살틀해지는 조선로동당의 품, 그 품속에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위대한 조선인민, 이 자랑스러운 현실이야말로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어떤것인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무궁한 단결의 힘이 무엇에 원천을 두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생동한 화폭이다.

하기에 조선에 왔던 한 외국인은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을 위해서 피를 바치고 꽃다운 청춘시절을 바치며 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런 인민, 참으로 이상하다. 과연 이 나라에 남이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평범한 생활로 되고있으니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인륜도덕의 어머니이다.》

남이란 없다!

바로 이것이 조선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릴 새로운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이 공기처럼 흐르고 사람마다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적극적인 협조관계속에 살아가는 조선은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참다운 락원이다.

3. 기적의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와 주체적인 민족문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21 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며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고 강성국가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야 한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방위력이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수 없고 언제가도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할수 없다.

자력으로 살아가는것이 정당하고 보람있는 길이지만 렬강들의 폭제와 전횡이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일관하게 견결히 지탱한다는것은 말처럼 수월한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 독자성을 지향하던 나라들까지도 대국추종에 빠져드는 기본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렬강들의 손탁에 매여 국가의 독자적인 발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기 힘든 오늘의 세계에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고 자력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조선은 자립성과 독자성이 강한 당당한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 자립적민족경제 건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발전하고 번영하자면 나라의 경제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여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다.

물론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극히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은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처지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고 밤낮 남에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수밖에 없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살아가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도

있듯이 힘들어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잘 살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지켜나갈수 있다.

조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인민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인민은 아무 일도 잘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평양시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주체 50(1961)년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를 높이 추켜든 로동자와 벼단을 안은 녀성농민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천리마를 함께 타고 질풍같이 달리는 모습을 형상한 청동조각상과 흰재빛화강석으로 된 조각대로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반영하고있는 《천리마동상》은 천리마운동을 주제사상적내용으로 하고있다.

전설적인 동물로서 비상히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날개돋친 천리마를 타고있는 로동자와 농민의 형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조선인민이 세기적변혁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현실과 그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천리마동상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기념비로, 천리마조선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킨 천리마운동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주체 45(1956)년 12 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였다.

당시 조선인민에게는 자재와 자금도 엄청나게 모자랐고 로력사정도 매우 긴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어려웠다. 이러한 때 일부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전진속도를 늦추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원조만 바라고있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철의 신념과 의지는 당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인민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그들에 의거하여 조성된 엄혹한 난관을 타개해나가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5(1956)년 12 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자신께서는 우리 로동계급밖에 믿을데가 없기때문에 당신들을 찾아왔다고, 지금 형편에서 강재를 계획보다 1 만 t 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강재문제는 전적으로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은 그대로 강선로동계급이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타파하고 천리마대고조의 첫 봉화를 추켜들게 한 커다란 고무적힘이였고 온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이 떨쳐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게 한 위력한 힘의 원천이였다.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나갔으며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갔다.

조선에서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영웅적투쟁기풍은 자력갱생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던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어느 한 농기계공장과 자동차수리공장의 로동계급은 비록 설계도면 한장 없고 전문생산설비도 없으며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조건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기어이 만들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악한 투쟁을 벌렸다.

소농기구나 만들고 자동차수리나 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였지만 그들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분해하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도면을 한장한장 그렸고 실물과 대비해보면서 수천종에 달하는 부속품을 깎았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그들은 동요와 실망을 몰랐으며 열백번을 다시 깎고 몇천번을 뜯었다 맞추는 한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만들어내고야말겠다는 생각으로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호뜨락또르는 불과 30 여일만에 만들어냈고 《승리 58》형화물자동차는 40 일동안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철도전기화를 실현해야 할 과업이 나섰는데 이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기기관차가 많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필요되는 수많은 전기기관차들을 다른 나라에 계속 손을 내밀면서 사다쓸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자체로 전기기관차를 만들 대담한 결심을 내리고 필요한 설계도면을 어느한 나라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사는 조선에서는 자체로 전기기관차를 생산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생산하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이발이 없는데 어떻게 콩을 먹을수 있겠는가 하는 어조였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기관차를 사다쓰라고 하였다. 그때 조선의 형편에서 필요되는 많은 전기기관차를 사올 형편이 못되였다.

조선로동당은 학업중에 있는 대학생들과 해당 공장의 기술자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설계를 하여 기관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기술자들도 20 대의 젊은 사람들로서 전기기관차에 대한 전문기술과 그것을 만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전기기관차를 만드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전기기관차를 만들자면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부속품만 하여도 3 000 여개 들어가는 고속도차단기를 비롯하여 고도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요구하는 1 만 4 000 여종에 무려

18 만개나 되는 부속품이 들어가야 하는 전기기관차이니 그 기술적어려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헐치 않은 일이였지만 조선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수십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만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고 하던 전기기관차의 고속도차단기를 만들어내였으며 불과 1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남의것보다 값싸면서도 1.5 배나 더 능력을 내는 전기기관차를 기어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내고야 말았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그 기적은 전기기관차를 생산할수 없다고 장담하였던 그 대사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전해진데 의하면 그때 그 대사는 조선인민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생산공장에 달려나왔다고 한다.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자주의 한길로만 달릴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인양 붉은기를 앞머리에 달고 거연히 서있는 전기기관차를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입빠른 망언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전기기관차에는 《붉은기》호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속에 자체의 자재,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기중기, 굴착기, 불도젤, 대형공작기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해내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중소규모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발휘되여 한해사이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으로 국가계획외에 1 만 3 000 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나날들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혁신이 일어났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조선인민은 6 만 t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 만 t 의 강편을 밀어내고 19 만 t 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용광로에서 27 만 t 의 선철을 뽑았으며 3~4 년이 걸려야 한다던 넓은철길부설공사를 불과 두달반동안에 완수하고 7 000 세대분의 자재, 자금, 로력을 가지고 2 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그 나날 전설속의 천리마가 혁명의 천리마로 나래펼치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천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천리마의 나라》,《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 시기 조선에서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다름아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그 뚜렷한 생활력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에 천리마를 탈수 있었다고,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준것이 아니라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7(2008)년 12 월 24 일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면서 이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올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8(2009)년 1 월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도 자력갱생으로 지펴올리고

강성국가의 대문도 자력갱생으로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라!

이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자신께서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대단히 중시한것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깊은 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수도의 거리를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여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긍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결과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고 더없이 만족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조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가지수는 실로 수만종에 달한다. 이것을 다 보장해주자면 반드시 여러가지 경제부문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것만큼 자립경제는 응당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또한 경제를 공고한 토대우에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1950 년대 중엽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운동내에서 전횡을 부리며 조선에 자기들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내리먹이려고 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쎄브를 공간으로 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쎄브(경제호상리사회의 략칭)는 1949 년 1 월에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정책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기 위하여 만든 경제협조기구였다. 쎄브는 주로 성원국들사이에 무역협정을 비롯한 쌍무적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경험을 나누고 경제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을 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대하여 《민족주의적편향》이라느니, 《사회주의체계로부터의 고립화》이라느니, 《페쇄적인 경제》이라느니 하면서 비방중상하였으며 각방으로 경제적압력을 가하였다.

당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조선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재더미우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어떻게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는가고 시비해나섰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는것은 때가 이르고 또 수지도 맞지 않으니 원료나 생산하고 기계는 사다 쓰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만일 이자들의 말대로 광석이나 계속 캐내서 다른 나라에 원료를 팔아 살아나간다면 지난날의 뒤떨어진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고 후손들에게는 텅 빈 굴밖에 넘겨줄것이 없게 될것이였다.

또한 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드는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기계를 사다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개건을 하려고 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를뿐 아니라 어느때 가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을것이였다.

타닝반을 한대 사오는데만도 많은 외화가 드는것은 물론 4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다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면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남보다 앞서 나갈수 없을것이였다.

조선로동당은 5 개년계획시기에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농쟁기나 생산하던 농기계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에 토대하여 대규모적이고 현대적인 뜨락또르공장을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8 만대의 뜨락또르생산목표를 테제발표 10 돐이 되는 주체 63(1974)년까지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이 자체로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대책을 취하지 않고 수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1 년에 1 000 대씩 수입하는 길로 나갔더라면 그만한 뜨락또르를 보장하는데 적어도 80 년이 걸렸을것이다.

결국 이것은 자립이냐 의존이냐, 자주냐 예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적인 문제였다.

하기에 조선은 쎄브에 가리워져있는 경제적예속의 올가미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난관을 이겨내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예속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0(1991)년 1 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쎄브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지난날 우리가 쎄브에 들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자주적으로 하여온것은 천만번 정당하였다, 만일 우리가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추종하여 쎄브에 들었다면 동유럽나라들처럼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만일 이때 조선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로선》과 《정책》을 따랐더라면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될 때 그 운명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세계적으로 그 어떤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자면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외에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도록 하였다.

기술적자립은 경제적자립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체의 발전된 기술이 있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근로대중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고 그것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하나의 혁명이다. 모든 부문에서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기술혁명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은 풍부한 원료자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체의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적극 개발하지 못하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겨우 원료나 반제품을 만들어 눅은 값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있다. 그대신 비싼값으로 기계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들이고있다. 이런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기술문제를 빨리 풀고 이에 기초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체 101(2012)년 12 월 12 일 9 시 49 분 46 초, 지구를 박차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 호기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발사후 9 분 27 초만에 운반로케트 《은하-3》에서 벗어나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한 《광명성-3》호 2 호기에서 내보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이 우주에 울려퍼졌다.

100% 자기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제작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경사이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변이였다.

인공지구위성은 해당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의 전과정이 전자공학, 기계공학, 조종학, 우주공학, 전자요소공학, 체계공학을 비롯한 현대응용과학기술의 종합체이기때문이다. 위성은

자동조종체계인것만큼 콤퓨터산업과 프로그람산업이 발전하여야 하며 위성과의 련계를 보장할수 있는 통신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서는 위성을 제작하여 성과적으로 발사할수 없다.

《광명성-3》호 2 호기는 지구관측위성이다. 《광명성-3》호 2 호기의 근지점고도는 499.7 ㎞이고 원지점고도는 584.18 ㎞이며 주기는 95 분 29 초이며 궤도경사각이 97.4° 인 극궤도위성이다.

태양동기극궤도는 인공지구위성의 비행궤도들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궤도의 하나이다. 이 궤도는 가장 널리 리용되면서도 기술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궤도로서 해당 나라의 우주기술발전정도를 가늠해볼수 있는 척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광명성-3》호 2 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주체공업의 위력과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위상을 힘있게 확증한 력사적장거였다.

인공지구위성발사로 하여 세계는 《광명성》이라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 말은 오늘 조선을 알게 하고 조선의 국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국제공용어처럼 되였다.

이에 화답하여 조선의 전구들마다에서 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경제가 활기를 띠고 하나하나 일떠서게 되였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금속, 기계,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이 실현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졌다. 특히 제철, 제강부문에서 콕스를 쓰지 않고 자체의 풍부한 자원인 석탄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방법이 완성되였다.

주체철생산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전통적인 철생산방법에서처럼 콕스를 쓰지 않고 조선에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주체철생산방법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생산방법으로서 조선에서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체철생산방법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그 빛나는 계승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첫시기부터 자체의 연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원한의 원철로를 폭파하도록 하신 그때에 벌써 조선식의 제철법으로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고 조선로동당 제 5 차대회에서 자체의 원료, 연료에 기초한 야금법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금속공업발전의 력사를 거슬러볼 때 근대적인 야금공업의 출현은 콕스의 개발과 련결되여있다.

콕스는 력청탄가운데서도 휘발분산출량과 점결성이 높은 석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가열하여 얻은 다공성탄소질연료인데 만드는 방법을 보면 나무로 숯을 구워내는것과 류사하다.

석탄을 건류하여 얻어내는 고온콕스가 개발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으로 철을 녹이는 근대야금공업이 출현하였다.

그때로부터 옹근 한세기를 두고 콕스가 없이는 야금공업이 존재할수 없는것으로 인식되여왔다. 그런데 조선에는 콕스의 원료인 력청탄이 없는것으로 하여 콕스자체를 수입하든가 아니면 력청탄을 들여다 해탄로에서 콕스를 구워내야만 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금속공업을 일떠세우는

첫시기부터 콕스가 아니라 자체의 연료에 의거하는 야금공업을 건설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이 사업을 줄기차게 내미시도록 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콕스가 없이는 철을 녹이지 못한다고 머리를 젓는 사람들에게 야금공업이 유럽이 아니라 조선에서 나왔더라면 콕스가 없이도 철을 녹였을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의 연료에 의거한 야금공업을 건설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대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결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생산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철생산공정과 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적인 금속공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배짱은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종전의 낡은 철생산공정과 방법이 없어지고 주체철생산공정에서 완전한 혁명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생산공정과 방식이 확립됨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무연탄만 대주면 주체철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자체의 기술인재를 해결하는것은 경제기술적자립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자체의 기술인재를 해결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밑에서 현대과학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자체의

기술인재를 해결하는것은 새 사회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인민을 위한 경제,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오늘의 세기, 21 세기에는 사람의 지능로동에 의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되여나간다. 지난 세기에는 물질적부를 분배하는데서 생산수단을 누가 쥐고있는가 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였다. 하다면 오늘의 세기에는 누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쥐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인재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인재가 노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과학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는 야심밑에 자기의 재부중의 재부인 인재자원육성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이것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뿐 아니라 사회경제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첨단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할데 대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재해결의 근본방도를 주체적력량강화에서 찾고 전국에 확립된 정연한 인재양성체계에 기초하여 최단시일안에 조선을 인재가 숲을 이룬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로선이다.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마치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보급망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다.

평양의 대동강의 한복판에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심기지로서 전국의 과학기술보급망체계의 생활력을 발휘하게 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은 보다 현대화된 종합정보봉사체계를 확립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기술보급의 체계와 내용,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갱신완성해나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를 리용한 과학기술자료주문봉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특정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주문하여 봉사받을수 있으며 주문봉사를 받고있는 많은 단위들에서 실지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의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서는 가입단위들사이에 과학기술정보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여 기술토론, 성과와 경험교환, 새 기술과 제품소개가 이루어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계속 높아져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이 체계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봉사를 받는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속에 자체의 튼튼한 과학기술인재력량이 강화되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 새 기적창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지름길이 열리고 첨단을 돌파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으며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표준들이 마련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일정한 발전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그 발전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다 거치며 발전하여가지고서는 언제가도 남을 따라앞설수 없다.

조선에서는 최단기간내에 세계의 앞장에 서기 위하여 남들이 걸어온 발전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담하게 뛰여넘으며 최첨단기술들을 개발하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핵심기초기술과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고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부문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현실은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를 키워내고 그들에게 의거할 때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떠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원료, 연료가 없이는 생산이 이루어질수 없다. 원료, 연료를 남에게 의존한다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다. 아무리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많이 건설하여도 원료나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원료, 연료를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기타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사다쓸것을 예견하고 원유를 쓰는 공업부문을 많이 창설하였다.

조선에서는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공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원유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다가 발전소를 돌리는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자기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을 리용하여 동력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의 경제는 세계적인 연료위기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업부문에서 원료의 70%이상을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조선에서 최근년간 해마다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더 놀라운 속도로 일떠서고 수많은 대건설사업들이 더 통이 크게 전개되고있는것은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그 어떤 힘도 자력으로 나아가는 조선의 길을 변경시킬수 없고 경제를 질식시킬수 없다.

△ 자위적국방력 건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공업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우리식의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자주적이며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번영하자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여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원만히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치렬한 투쟁이다.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압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오늘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국방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지 못하고 나라의 방위를 남에게 의탁하게 되면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는것은 물론 남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면 서는 식으로 시키는대로 하는 종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쏘련의 무장력이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고있으며 쏘련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군사기술과 미싸일-핵무기에 의해서 세계평화가 유지되고있다고 꺼리낌없이 말하면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전쟁도발의 구실을

준다고 하면서 시비하고 방해해나섰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저들의 핵우산밑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데 그 속심이 있었다.

만일 조선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의 군사적압력에 조금이라도 굴복하여 나라의 방위를 남에게 의탁하였더라면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주동적으로 분쇄할수 없었을것이며 대국에 구걸하며 수정주의길을 걷는 운명을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수호하자면 반드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주변나라들이 나토에 합세하고 그처럼 믿었던 로씨야까지 도와주지 않는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 결론은 첫째도 둘째도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길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미국과 나토에 의하여 강요된 발칸전쟁이후 유고슬라비아의 한 고위인물이 남긴 말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를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되새겨주고있다.

조선은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력사적로정에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적들의 항시적인 침략책동과 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이 억척같이 다져졌다.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군대는 전쟁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전쟁은 계급이나 민족, 국가가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거하여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조직적인 투쟁이다.

현시기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강대한 힘을 가진 미국이 무엇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안하무인격의 오만무례한 론리를 내세우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기성국제관례나 국제법, 국제조약도 다 헌신짝처럼 짓밟고있으며 국제적안정과 불안정도 미국의 리해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있다. 세계의 그 어디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슴없이 무력간섭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수단을 만능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구 휘둘러대는 조건에서 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고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보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갔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오늘 인민군대와 같이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정치사상적위력에 군사기술적위력이 다같이 겸비된 혁명적무장력, 그 어떤 강적들도 공포에 전률하는 강군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지상공격작전을 기본으로 하여 침략하는것을 선차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장거리정밀유도무기, 첨단군사기술장비, 대형타격수단을 선제공격수단으로 하여 적측지역을 초토화한 다음 지상무력을 들이미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결국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립체전이다.

조선은 령토도 작고 종심이 얕으며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제가 일거에 점령하려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시에 덮쳐들것은 뻔하다.

이로부터 군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이 손에 무장을 잡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요새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대적이 하늘과 바다, 륙지 그 어디로 쳐들어와도 끄떡없으며 맞받아 쳐물리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1(1962)년 12 월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는 조선에서의 전민무장화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무장화를 실현하는데서 합리적인 민간무력형태를 누구나 맡은 초소에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적과 싸울수 있게 준비된 비상비적무장대오로 규정하시고 주체 48(1959)년 1 월 14 일 민간혁명무력인 로농적위대(오늘의 로농적위군)을 창건하시였다.

로농적위군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자원적인 민간군사조직으로서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비상비적인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로농적위군은 정규무력과의 협동작전은 물론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자립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전투능력을 소유한 강력한 군사집단으로 강화발전되여 군사강국으로서의 나라의 위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9(1970)년 9 월 12 일 청소년학생들의 자위적인 무장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도 조직하시고 그를 강력한 민간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붉은청년근위대는 당과 수령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학생청년들의 자위적인 군사조직으로서 학습을 본신임무로 하면서 조국보위임무도 수행하는 혁명적민간무력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로농적위군과 함께 후방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온 나라를 소왕청처럼 만들자!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조선혁명은 소왕청유격구의 넓지 않은 지역에 하나로 응결되여있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일제는 사면팔방에서 하늘과 땅으로 5 000 여명의 정예병력을 내몰아 90 여일간의 끈질긴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때 유격구에는 무장인원이 겨우 2 개중대의 력량밖에 없었다.

전투기술기재의 차이는 말할것도 없고 무장력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고한 투쟁끝에 끝끝내 유격구를 사수할수 있은 근본비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신 독창적인 전인민적방위체계에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유격구의 곳곳에 적들이 쳐들어올수 없게 여러가지 방어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적들이 덤벼들 때마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결사전을 벌렸다.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총동원되여 목숨걸고 싸웠다. 결과 일제가 비행기와

대포를 앞세우고 쉽게 소멸해버릴것이라고 타산한 소왕청유격구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더욱 억세게 전진할 혁명의 대지로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전국요새화방침에 따라 오늘 조선은 전연과 해안 할것없이 모든 지역과 지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전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된 조선의 현실은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느한 나라의 고위군사대표단성원들은 조선에 와보고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 나라처럼 전민이 무장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틀림없는 군사대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것을 무기나 전투기술기재에서 찾는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인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 자각적군사규률 등은 오직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혁명전쟁의 력사가 증명하는바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는 비록 무장에서 뒤떨어졌다 하여도 최신무장을 갖춘 적과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였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 《창해일속》이라고 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의 100 만관동군과 맞서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 있었기에 1950 년대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정규무력으로 건설된지 불과 2 년밖에 안되는 조선인민군이 현대적무기를 가지고 200 여만의 대병력으로 달려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을 꺼꾸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이야말로 혁명무력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이다.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방공업을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국방공업은 자위적국방력의 물질적담보이다.

자체의 국방공업이 있어야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여 군대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다. 국방공업을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장을 필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수량만큼 장비할수 없으며 설사 장비한다고 하여도 무장력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수 없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무기를 미끼로 하여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려고 한다. 결국 국방공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서는 나라를 보위할수 없다.

현대전은 자체로 무장을 충분히 생산하여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현대전을 놓고보면 지난 시기 전쟁들에 비할바없이 방대한 량의 무기와 군사장비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탄약문제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제 2 차세계대전시기 일반병종집단이 공격작전을 할 때 하루 평균 탄약이 1 200t 정도 소비되였다면 오늘의 전쟁에서는 하루에 탄약을 4 000t 정도 소비하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제 4 차 중동전쟁시기

수리아군이 이스라엘군에 대하여 반공격을 할 때 어느한 사단은 1 500 문의 포로 55 분간 포병준비사격을 하였는데 포탄을 약 10 만 5 000 발 쏘았다고 한다. 미제는 1991 년에 있은 페르샤만전쟁 40 여일동안에 태평양전쟁시기 14 개월동안 출동한 비행기수의 11 배에 달하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웰남전쟁 9 년동안에 투하한 폭탄의 1.5 배에 달하는 8 만 8 500t 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였다.

탄약 하나만도 이러하니 다른 무기와 군사장비들은 구태여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많은 군수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강력한 국방공업이 없이는 현대전을 감당해낼수 없으며 제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수 없다.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였기에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어놓았다.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후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전쟁에 대처하자면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며 유사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은 주체 51(1962)년 12 월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전쟁에 대처할 군사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훌륭히 갖추고 전선과 후방을 다같이 튼튼히 꾸려놓았다.

조선로동당은 주체 102(2013)년 3 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오늘 조선은 수소탄을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미싸일, 전략잠수함탄도탄, 극초음속미싸일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였다.

주체 111(2022)년 1 월 5 일과 11 일 두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17 일에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25 일에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 27 일에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 30 일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쳤다.

3 월 24 일과 11 월 18 일 조선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올랐다. 이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을 위협하고 억제해보려는 자멸적인 군사적행동에 매달릴수록 더욱 공세적인 군사적대응에 부딪치게 될것이라는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발사장에 몸소 나오시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신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적들을 무서운 공포와 불안속에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지난날 침략자들이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려들 때에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이 오늘은 강력한 국방공업에 의거한 세계최강의 군력에 떠받들려 자주와 정의의 성새로,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높이 솟아 존엄떨치고있다.

조선의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되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조선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한것이다.

세계는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이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봉쇄속에서도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경탄하고있다.

기존의 정치개념이나 경제학적인 수자로는 가늠할수 없는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의 발전잠재력과 발전전망은 대단히 크며 조선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4. 전도양양한 나라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 계승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계승년대에는 분파가 생겨나고 좌절과 혼란을 겪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데로부터 지난 시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 력사적비극이 초래되였다.

조선에서는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계승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혁명의 대를 잇는것을 만년지계의 국가대사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오늘 세계는 조선의 눈부신 전변상에 대해서도 감탄하고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제가 편파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더 부러워하고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있는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 령도의 계승문제 완벽하게 해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에 있어서 령도의 계승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의 계승문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계승문제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수령이 개척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그런것만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전도와 장래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계승해나가자면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고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의 직접적계승자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뛰여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내세우고 후계자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수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령도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배신자들, 야심가들에 의하여 사회주의위업이 진통과 곡절을 겪게 되며 나중에는 피흘려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지나온 력사는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수정주의의 시조인 베른슈타인은 맑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을 부정해나서면서 사회주의란 무조건 도달해야 할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해도 무방한 《도의적》인것이라고 지껄여댔다. 엥겔스의 총애를 받아온 베른슈타인은 엥겔스가 서거한 후 눈물도 채 마르기전에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맑스와 엥겔스를 공격해나섰으며 그후에는 레닌을 《폭군》으로 묘사하면서 그에게 별의별 감투를 다 씌워 비방중상하였다.

현대수정주의의 두목 흐루쑈브는 쓰딸린의 생존시에 그를

《오늘의 레닌》, 《당의 뇌수와 심장》,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천재이며 수령》, 《위대한 필승불패의 원수》로 극구 칭송하였다. 이렇듯 쓰딸린에게 《충성》을 부르짖던 흐루쑈브는 쓰딸린이 서거하자 태도를 일변하여 그를 불구대천의 원쑤처럼 여기면서 비방중상하고 권위를 헐뜯었으며 쓰딸린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말살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좌절과 자본주의의 복귀를 가져온 고르바쵸브는 처음부터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음모적방법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지위에까지 오른 고르바쵸브는 레닌과 쓰딸린을 모독하고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말살하였을뿐 아니라 쏘련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붕괴시켰다.

이것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계승문제, 후계자문제가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수령의 후계자를 내세우고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세울 때 사회주의정치체제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은 조선의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조선은 선견지명의 탁월한 정치가,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를 계승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로 나서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리상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시고 빛내이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패의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뛰여난 지략으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령도적지위를 넘겨주는 문제로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업으로 보시고 혁명위업계승에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문제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모시고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조선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강성번영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탁월한 사상과 령도예술, 고매한 인민적덕성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 고전적정의를 내리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이 위대한 사상의 력사적지위를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로 집필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한 시대의 기념비적대작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내가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정일**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튼튼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시였다.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것을 철칙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쪽잠과 줴기밥으로 현지지도의 낮과 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총대와 군력이 가지는 중요성과 미제국주의자들과 항시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조선혁명의 특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 년대 중엽 엄혹해지는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튼튼히 고수하고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그토록 준엄하였던 시기에도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땅우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지니시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 희세의 탁월한 령도자를 높이 내세우시여 주체조선의 천만년미래와 영원한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미국의 어느 한 연구소의 고위연구원은 《**김정일**령도자는 20 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대위인이신 **김일성**주석형의 위인이시다.》라고 하였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며 사회정치학박사인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진정 **김정일**령도자는 **김일성**주석과 꼭같으신 인민적수령이시였다.》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비범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 백두의 기상과 담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완전무결하게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사상리론과 령도력에 의하여 지난 10 여년간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조선혁명은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왔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령도적권위,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 조선인민의 투철한 자주정신과 강용한 기상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거창한 혁명실천이 떠올린 빛나는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조선식사회주의승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는 희세의 사상리론가이시다.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에 관한 백년대계의 전략,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사상,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리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리론들은 조선혁명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방략이고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모든 혁명진지를 3 대혁명화할데 대한 리론,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등은 조선혁명을 위대한 새 승리에로 인도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세련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걸출한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지난 10 여년간은 조선혁명이 장구한 행로에서 겪어온 무수한 고난과 애로가 다시 재현되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형언할수 없는 도전들이 엄청나게 겹쳐든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생존 그자체가 기적인 엄혹한 격난속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적역할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나라의 국위가 최고의 높이에 올라섰으며 조선인민의 애국정신과 창조적열의가 비상히 승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차넘치게 된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 투철한 원칙적립장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그 힘을 발동시켜 풀어나가는 인민적령도이고 부닥치는 모든 장애를 맞받아뚫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며 온갖 도전을 정면돌파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며 혁신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방식이다. 새로운 발전의 시대,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업실현, 사회주의건설전역에서 창조되는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은 어떤 신비한 힘이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들을 다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령도자로서뿐 아니라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앞에서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분,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과 불같은 헌신으로 인민을 위한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조선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부로, 지상의 보람으로 여기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세계는 동서고금 그 어느 위인전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의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풍, 국풍으로 공고화되고 조선식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졌다. 지금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조선인민들을 새시대 문명에로 인도하는 건설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는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인민의 령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강성번영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시는것으로 하여 조선혁명, 조선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그토록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 1 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상과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그대로이시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굳건하다.》라고 말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전 리사장은 《진정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국가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번영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위대한 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조선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며 광명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은 전도양양하며 그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혁명전통계승문제 특별히 중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지난 시기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시원으로 되는 력사적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고 혁명위업이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밑천이다.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게 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 창시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안에 확립된 유일사상체계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확립하신 주체의 사상체계는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운 사상체계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수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 당과 혁명, 인민과 동지를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애국주의 등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시고 숭고한 혁명정신을 창조하심으로써 조선의 혁명가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전기간에 지녀야 할 가장 귀중한 사상리론적 및 정신도덕적재부가 마련되게 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면서 조선혁명의 발전과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되는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업적과 경험은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당을 제때에 창건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튼튼한 토대로 되였으며 오늘도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지침으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리론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심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정권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의 다른 하나는 피압박인민들이 자기자신의 힘으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무력건설과 혁명전쟁승리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것이다. 이 빛나는 업적과 경험은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고 혁명무력을 창설강화하며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혁명적유산으로,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대중단체건설과 통일전선운동, 인민적인 경제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와 출판보도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창조하시여 주체의 혁명전통이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들로 충만되게 하시였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이 사업방법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늘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모든 일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창조적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며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그 해결에 힘을 집중하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킬것을 요구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인민적사업작풍은 인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배우고 인민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태도이며 기풍이다. 무한한 겸손성과 소박성, 고상한 인간성과 문화성 그리고 모든 일에서의 이신작칙, 일단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장을 보고야마는 철저성, 제기된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처리하는 기풍 등은 인민적사업작풍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창조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대중령도방법이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의 지도사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의 원리와 원칙, 혁명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다 담겨져있는 혁명전통은 커다란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당과 혁명의

피줄기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자면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들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전통의 계승은 창조에 못지 않게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조선에서는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피줄기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만년초석으로 틀어쥐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중단없이 힘있게 벌어졌다.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되였으며 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천명하시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에서 당사업을 시작하시던 시기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장엄한 력사적시기에 마련된 혁명전통의 순결한 계승에 대하여 1960 년대에 하신 간곡한 당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는것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조국의 혁명정신이라고, 새 세대들이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나가게 하려면 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부터 심어주어야

한다고, 실로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선배들이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재부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재부라고 말할수 있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수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 년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신념의 선언을 하시였다.

날씨가 좀 풀릴 때 오르시였으면 좋겠다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진짜 백두산을 보았다고 말할수 있고 백두의 기상을 알수 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련봉을 굽어보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덕을 수없이 맞받아 헤쳐나가시며 위대한 혁명정신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시였다.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면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릴수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부를수 있다고, 이것은 지나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증명한 불패의 진리이라고 격정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자신께서 오늘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신념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렬차를 타고 함경북도 온성으로 가시던 길에 회령에 들려주실것을 일군들이 간절히 아뢰였건만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의 고향집부터 찾겠는가고 하시며 곧바로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으로 가자고 하신 이야기는 그 시기에 엮어진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건설과 관련하여 무려 200 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1970 년대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구호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공적은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

2000 년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충격적인 현지지도보도가 세계의 모든 눈과 귀를 끌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전설적영웅, 희세의 위인이시였다,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깊이 간직되여있을것이며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항일의 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만단사연을 잊지 못해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설레이는 백두밀림에서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만년초석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걸어온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나날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절감하게 하였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지는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시련속에서도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력사적사변들,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도도히 굽이치는 대하에는 시원이 있고 아름드리거목에도 그 뿌리가 있다.•

세인을 경탄시키며 이 땅에서 끝없이 창조되는 무수한 기적과 사변들,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며 나아가는 조선의 불패의 기상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주체의 혁명전통, 그 빛나는 계승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만방에 빛내이시며 혁명전통계승의 최전성기를 펼쳐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2(2013)년 11 월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삼지연혁명전적지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조선인민이 영원한 생명선으로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나가야 할 혁명의 피줄기는 오직 백두의 혁명전통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준 거룩한 행로였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 해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길, 사회주의한길로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장거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행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시려는 총비서동지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시위하였다.

대한추위가 물러가지도 않은 궂은날에 눈덮인 산길을 오르내리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구호문헌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구호문헌들을 세대를 이어가며 영구보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만리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새겨진 혁명전적지들이 조선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인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3(2014)년 10 월 27 일 사나운 눈보라를 맞으시며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이 땅에서 10 월은 가을이라고 하지만 백두산에는 눈이 쌓여있었고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어떻게 백두산에 오르시겠는가고 간절히 아뢰이는 일군들에게 이런 날씨에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아야지 어떤 날에 맛보겠는가고 하시면서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신 백두산행군길을 돌이켜보시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그대로 온 나라 인민을 백두의 혁명전통이 창조된 혁명의 전구로 부르시는 힘찬 구령이였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자는 열렬한 호소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많은 답사자들의 대오가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주체 104(2015)년 4 월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조선인민이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이 땅우에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뜻과 념원이 실현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는 백두령장의 웅지가 맥박치고있었다.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일떠선 조선혁명박물관에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데 맞게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시고 그 형성안과 전시방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3 월,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여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하시면서 박물관의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거룩하신 자욱자욱은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혁명사적부문의 여러곳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찾으시는 일터마다에서 제일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8(2019)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력사적인 군마행군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또다시 세차게 일으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마를 타시고 백두전구를 종횡무진하시며 백두광야에 조선혁명사의 첫 페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발자취와 빨찌산의 피어린 력사를 감회깊이 안아보시였고 차디찬 눈무지우에 앉으시여 모닥불을 피우시며 원대한 구상도 무르익히시였으며 하많은 사연 안고 흐르는 소백수물결우에 소중한 추억도 떠올리시며 불굴의 혁명신념을 가다듬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있지만 백두산의 그 웅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메부리가 쩡쩡 울리도록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이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꿈으로 소중히 그려보시며 험산준령을 강의한 의지로 헤쳐넘고 뚫고넘으셨을 그날의 수령님의 심중을 경건히 새겨안아보느라니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마음과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지만 힘이 용솟음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12월의 군마행군길에는 오늘날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숭고한 본보기가 있고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지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이 력사적인 군마행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고수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들속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백두의 행군길, 그길이 곧 불굴의 혁명신념으로 력사의 광풍을 뚫고나가게 하는 승리의 길이기에 좋은 날, 좋은 곳만을 찾아다니는 세상사람들과는 달리 조선인민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전구에로 달리고달리는것이다.

그 길에 서면 빙설천지에 가랑잎과 나무껍질을 깔고 자며 생눈을 삼키면서 일제를 족친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가 어려오고 연길폭탄정신으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 억센 기상이 용솟음치며 조선로동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불굴의 의지가 차넘친다.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붉은 피를 펄펄 끓여주는 백두의 행군길은 년대와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가야 할 조선인민의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수령의 령도업적 옹호고수의 길,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의 길이다.

조선에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계승되고 구현되여 주체의 사회주의가 드팀없이 고수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쳐 조선인민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백두산바람을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 청년문제해결에서 훌륭한 본보기 창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의 전도와 직결되여있는 청년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후비대들을 키우는 문제, 청년문제는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당과 혁명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청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성숙과정에 있는 세대이며 청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옳은 지도를 받고 혁명적으로 교양육성될 때 혁명적인 세대로 준비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부패타락의 길, 반동의 길을 걷게 되며 종당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망치게 된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홀시하고 마비시킨 결과 그들이 적아도 가려보지 못하는 무골충같은 존재로 되고 군대가 약화되여 사회주의배신자, 계급적원쑤들이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는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지켜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청년문제를 홀시하고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옳바로

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위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당도 혁명도, 나라와 민족도 망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상에 존엄높은 조선의 위대한 모습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특이한 점의 하나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조선에서는 청년중시를 당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일관하게 견지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커다란 힘을 돌렸다.

창건된 첫날부터 조선이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이 청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워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세계청년운동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전략적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청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조선청년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로 보던 선행리론과는 달리 혁명의 주력부대, 조국의 운명을 걸머진 골간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에게 선렬들의 넋이 어린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됨으로써 세계청년운동은 쓰라린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잃었다고 하면서 가슴을 쳤고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검은구름밑에서 갈길 몰라 헤매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청년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정치적문제들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조선의 모범은 그대로 세계청년들의 끝없는 리상과 희망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년들을 믿음직한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문제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으며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실천투쟁속에서 억세게 키우고 단련시키시였다.

예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청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십만자루, 백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천만가지 일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청년동맹일군들을 키우는 문제로부터 청년들을 교양하는 문제, 청년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선봉에 서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어느해 1 월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한번 교양하여 안되면 열번, 백번 교양하여서라도 꼭 당의 후비대로 키워야 한다고,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자는것이 바로 자신의 지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계에는 청년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명인이 없고 청년들을 내세워야 한다는 구호를 든 정치가도 있었지만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을 자신의 지론으로 내세운 걸출한 위인은 없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사업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고 때로는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며 그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건설문제며 홰불체육단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청년전위》, 《새날》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잡지, 교양자료발행을 위한 자재보장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여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청년들을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는 청년중시기풍이 나래치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청년문제를 당의 전도와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중핵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몇해전 10 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의 전진과정은 혁명대오의 끊임없는 세대교체과정이며 혁명의 성패는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력사적경험은 청년들이 혁명의 피줄기,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당조직들에서는 청년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강국건설의 척후대,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사업의 중심에 청년사업을 세워주시며 일군들의 심장속에 그 의의를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으신 뜻에 떠받들려 청년중시가 조선로동당의 기풍으로 확립되고 당과 혁명, 민족의 장래운명과 직결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워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장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지금도 조선인민의 귀전에 들려오고있다.

조선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이다.

이 뜻깊은 말씀에 조선청년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보배중의 보배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사랑, 청년들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승리와 번영을 안아오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천군만마,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진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이 어려있다.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청년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의 글발이 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억장이 무너져내린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고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신 친필이다.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친필을 받아안고 초소와 건설장, 천길지하막장 그 어디서나 장엄한 진군길에 위훈의 첫 자욱을 새긴 조선청년들이였다.

그 시작부터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으로 맥박치고 청년판으로 끓어번진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진군길은 그야말로 청년들의 약동하는 기상으로 흘러온 벅찬 나날이였다.

조선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그 어느 나라 청년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몸이 열백쪼각 난대도 오직 당이 정해준 침로따라 나아가는 곧바로의 정신,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배짱과 담력을 지니고 10 년을 1 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의 속도로 내달리는 드세찬 공격정신,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시였던 그날은 주체 104(2015)년 4 월 19 일이였다.

그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헤아려보신것은 단순히 건설중의 언제와 물길굴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백두의 혹한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싸워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굴함없는 정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진정을 더 크게 보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장에 와서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청년들에게 나는 청년들을 믿고 청년들은 나를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고 호소하였다는것을 전달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를 찾으시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계곡에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에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500 만 청년전위들의 심장의 분출이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력한 청년조직과 수백만 청년대군이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심장의 피줄을 이어놓고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조선특유의 위대한 모습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을 두고 전망없는 세대와 직면하였다는 가슴아픈 우려와 청년문제야말로 천만금의 재부로도, 고도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수 없는 인류의 난문제라는 탄식이 만연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만은 영원한 청춘송가, 당을 따르는 일편단심의 송가가 하늘높이 울려퍼졌다.

하기에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조선의 현실에 대해 외국의 인사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장구한 행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국무위원장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적청년운동의 승리의 력사이며 조선청년들의 애국주의와 충성심이 뚜렷이 발현된 력사이라고 하였다.

조선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청년동맹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많은 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사회적인 난문제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창조와 건설의

맨 앞장에 서있다, 조선은 영원히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에서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 청년들이 수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자랑이고 긍지이다.

앞으로 세상사람들은 조선청년들의 위용과 더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게 될 주체조선의 기상을 더욱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이야말로 령도의 계승문제와 혁명전통계승문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나라, 전도가 창창한 나라이다.

계승성이 확고히 담보된 전도양양한 나라인것으로 하여 조선은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며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맺 는 말

오늘 조선인민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만민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조선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인 인민정권이 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진 불패의 통일단결, 그 어떤 제재와 압살책동에도 끄떡없는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세계최강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다. 뿐만아니라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전체 인민이 튼튼히 무장하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담보하는 청년강국, 500만대오가 있다.

철저한 인민성, 사상의 유일성, 확고한 자립성, 일관한 계승성은 조선의 고유한 특징이다. 세계가 알수 없는 조선의 막강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 이런 강한 나라, 강국이 없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를 끝없이 사랑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빛내이며 그 위용을 영원토록 떨쳐갈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나라 조선은 세계에 위용을 떨치며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